

청취자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른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라디오 다 이얼을 돌리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사실은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말씀을 증거하는 저나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젖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시간을 담당할 첫 시간으로 행17:22~24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1. 종교성과 시간(3/27/10)

[행17:22~24]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텐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23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序; 이 시간에 “종교성이 많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한 말은 유명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뒤르케임은 사람은 종교적 동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지구상 어느 종족을 찾아가도 다 그들의 종교와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외의 무엇인가를, 또는 누구인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아기는 부모의 보호 없이 결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도 통하는 사실입니다. 태어나서 부모를 의지하는 그 본성은 일생을 자기 외의 무엇인가를, 누구인가를 의지하는 본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종교성입니다. 이 종교성은 보편적으로 물질을 의지하거나,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데, 가장 흔한 것이 부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헤아려보면 다 의지하려는 본성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기타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은 다 의지(依支) 본성의 발로입니다. 그런 것들도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종교성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종교는 굴복하는 마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거리를 걸으면서 많은 신전과 신단을 보았습니다. 그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쌓은 단도 있었습니다. 혹시 알지 못해서 섬기지 못한 신이 노하여 재액을 퍼부을까 두려워하여 그런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람에게 종교성이 많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성질에서 벗어나지 못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

사람이 자기 외에 무엇을 의지하는 본성은 어쩌면 공포심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본성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의 모태는 죽음입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인다는 위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다른 두려워할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죽는다는데 귀착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사망을 거부하는 정서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닌 정서가 몇 가지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을 거부하는 정서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정말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인생문제 대하여 성경을 강론할 때에 종종 죽인다고 하면 왜 두려워하느냐고 물어봅니다. 대부분, 살기를 원하니까, 죽기 싫으니까, 등등 당연한 대

답이 나옵니다. 다 맞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대하는 대답은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저는 “죽이면 죽으니까 두려워하지요.”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정답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도 죽어도 안 죽는 사람은 죽인다는 위협이 우스운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이면 다 죽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하여 솔직하게 가르칩니다.

[히2:14,15]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정말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자기보다 강한 무엇이어야 합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자라야 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그런 분으로 신뢰되니까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나 사실 부모도 이 죽음에서 자녀를 지켜줄 능력이 없지요. 똑 같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타이릅니다.

[사2:22]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시146:3,4]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앞에 말씀한 히브리서 2:14,15은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분이 누군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없이하신 분을 믿고 의지할 때 사망을 이기게 된다고 말하지요. 사망을 이기신 분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종교성이 많은 인생에 대한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2.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사람

사람이 죽음을 아무리 두려워해도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히9: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기 싫어합니다. 영생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죽음의 공포보다 더 강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성은 창조주께서 태초로부터 주신 것입니다. 사실 죽음은 전혀 불청객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마구 폭력을 휘두릅니다. 이 불청객이 한 번 들어온 후에는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원래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지요. 청취자들께서도 그런 사실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왜 죽음이 들어왔는지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원래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매여 있게 된 때에도 이 생명의 영원성에 대하여 완전히 잊어버릴 수 없고, 이 죽음보다 강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죽는 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죽기를 무서워하며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3: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종교성의 본질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양에서 이런 마음을 가장 극적으로 나타낸 사람이 진시황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는 불로초 불사약을 구하기 위하여 동남동녀들을 삼신산에 보냈다는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진시황뿐만 아니라. 한 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불사약으로 승로반을 만들어 이슬을 받아 금가루를 그 물에 타서 마셨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들은 다 영원을 사모하는데서 나온 것이며, 이런 마음은 창조주께서 사람의 본성 깊은 곳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 본성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사람은 영생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성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종교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

리라고 생각합니다.

3. 무수한 신과 신앙

이런 사람들의 본성이 무수한 신을 만들었습니다.

[고전8:5]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사람들이 가장 쉽게 섬기는 신이 재물의 신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19장에는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답을 얻으려고 나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마침내 그에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이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영생보다 재물이 그의 신이 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한 재물이 섬기는 대상으로 하나님과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재물의 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렇겠지요.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재물로 해결하려고 하지요. 뇌물이나 선물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인생 문제의 어떤 부분을 해결합니다. 이런 사상을 솔로몬은 잠언에서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잠13:8]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헐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잠18:11]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렇다고 죽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은 천체들을 신으로 여겨서 섬기고 빌고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신4:19]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월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어느 민족이든지 천체를 신으로 섬긴 예는 다 있습니다. 그 중에 태양을 가장 많이 경배했습니다. 산을 섬기고, 강을 섬기고, 바위와 나무를 섬깁니다. 심지어 모기를 신으로 섬기는 족속도 있다고 합니다. 뱀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이 모두 종교성의 발로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안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섬김에는 전혀 상대방과 대화가 없습니다.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믿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 전도지를 돌리며 집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갈매리라는 마을에 갔을 때 어느 널찍한 마당에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신수가 훤히 생긴 노인분이 마당 가운데 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새끼를 꼬고, 이엉을 엮고 무엇을 하는지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들을 지휘하고 있는 노인분에게 다가가서 전도지를 전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시지요.”

그 노인 분은 저를 빤히 보시더니 불쑥 말을 했습니다.

“자네, 여기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아나?”

“모릅니다.”

“자네, 이 동네로 들어오다가 동구에 큰 나무가 있는 것 봤나?”

“예.”

“우리가 이달 보름에 그 나무에 동제를 지낼 것이네. 그 준비를 하는 중인데, 그때 자네 그 동제에 참여하게. 그러면 나도 교회에 가지.”

“할아버지, 그 나무에 제사를 지내면 나무가 복을 줍니까?”

“허허, 이사람, 교회에 가면 무슨 복을 주나?”

“할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말씀에 의하여 합니다. 그런데 나무

가 무슨 말씀을 주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 노인 분은 “성경은 그냥 성현의 말씀이지.”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무는 아무 말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화가 없이 스스로 믿는 신앙이 바로 미신입니다.

신앙에는 그가 믿는 신과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상방의 대화 없이, 믿는 사람의 자의식을 대상화하여 마치 인격적 상대를 대하듯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독백일 뿐입니다. 종교성이 많다 해도 그가 믿는 하나님과 대화와 소통이 실제적으로 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외로운 독백과 스스로 대상화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일 뿐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미신의 기본 출발점이 아니겠습니까.

4. 신앙의 대상을 바르게 찾아야

사람들에게 있는 종교성 곧 신심은 바르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종교성이 있는 것은 사람이 영원한 신앙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 종교성을 활용하여 올바른 신앙을 하는 것은 이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이 아침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신앙의 대상을 바로 찾으신 분일 것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천체나 천연계의 물체를 경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데,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신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창조하신 만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롬1:19,20]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대학에서 신학과 외의 학과 학생들에게 교양 성경을 가르칠 때 일입니다. 대부분 신앙에 별 관심 없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강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너는 부모가 계시는가? 부모가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거야 쉽지요.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요, 항상 돌봐주시고 날마다 같이 있는데요.”

“그럼, 고아들은 어떻게 부모가 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 ?”

“대학생의 대답이 그래야 되겠나? 나는 자네 부모가 계신 것을 당장 증명하겠네.”

“어떻게요? 한 번 해 보세요.”

“자네가 자네 부모가 계시다는 증명이지. 자네는 부모 없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겠나?”

자녀들은 부모가 계시다는 증명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증명입니다. 것처럼 창조된 만물은 창조주가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명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종교성은 있는데, 창조주를 찾지 못하고 피조물이 마치 능력이 있는 어떤 의지해야 할 존재인 것처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서 종교심을 발휘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옛날 일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믿든지, 창조주를 부인하고 전혀 무신론 사상으로 살든지 형태는 달라도 다 종교성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토기가 토기장에게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힐난하는 것과 같고, 자식이 부모에게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고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45:9,10]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투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

다 할 수 있겠느냐 10 아버지께 묻기를 네가 무엇을 냈느냐 어머니께 묻기를 네가 무엇을 냈으려고 구로 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오늘날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화를 만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앙이 올바른지 스스로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올바르다면 감사함으로 더욱 진실한 신앙생활로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만일 올바르지 않다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하도록 마음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은 그의 인생 경험을 통하여 진심어린 권고를 합니다.

[천12:1] 너는 청년의 때 곧 끈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배하기를 권고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 즐겁게 사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이 영원한 생명을 찾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엄청난 괴로움입니다. 솔로몬은 즐겁게 사는 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전11:9]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세상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 즐거움을 누리려는 것은 사람들이 누릴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권고합니다.

[전12:13,14]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14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간 모든 일에 대하여 창조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했지요.

우리에게 있는 종교성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창조주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며 창조주의 뜻을 따라 행복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각오하고 우상을 섬기는 상태로 살았는지 물으십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창조주께서는 그런 사람을 창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그것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창조주께서 주신 원래의 생명을 회복하여 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결코 누리지 못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5. 호흡이 있을 동안에

사람이 호흡하고 있는 동안, 맑은 의식을 가지고 판단하며 활동할 수 있을 동안 우리의 종교성을 올바르게 활용해야 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다시는 신앙을 할 수 없습니다. 의식이 분명하지 않아도 바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또 5장에는 아담과 셋의 후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두 족보에는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인의 후손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업적을 기록했고, 셋의 후손들의 족보에는 업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나이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니다. 재미있는 대조가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그들에게 허락된 세월 동안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과 하나님의 창조시의 계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인의 후손들은 인간적 비즈니스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경계합니다.

[엡5:16,17]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아끼는 세월동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일찍 모세는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1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지만, 그의 기도에는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시편 90:10,12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행사한 사람이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날에 대하여 관심을 두는 대신 자기 사업에 몰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세월, 곧 시간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종교성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 각 사람에게 허락된 세월을 성경은 은혜의 기간이라고 가르칩니다.

[고후6:1,2]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구원의 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날 동안 우리에게 있는 종교성, 곧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올바르게 활용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찾아서 그를 믿고 경배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한 순간에 기대하지 않던 죽음이 닥칠 수 있습니다.

[시39:4~7]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려움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시니이다 6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시니이다 7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경건한 왕이었던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는 인생의 연약함을 실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연약한 인생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든든히 섰다고 할 때도 실상은 허사이며, 그림자 같고 헛된 일에 바쁘고 재물을 쌓지만 그것을 누가 가져갈는지 모르는 것이 인생의 진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소망을 창조주 하나님께 둔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세월, 곧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직도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몰라도 우리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물질을 축적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지식을 습득하면서 시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생각하면 시간에게 우리의 삶이 정복당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우리를 완전히 정복했을 때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아직도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있을 때 세월을 아끼고 경배할 분을 바르게 찾아서 두려움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바로 이렇게 죽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 경배하도록 허락된 은혜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죽을 수밖에 없도록 된 인생이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종교성을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의 기간입니다.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 그것이 곧 세상의 끝이고, 세상의 끝이라는 말은 세월의 끝, 곧 시간의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 후에는 영원함이 있을 뿐입니다. 영원함은 시간이 끝난 것이고 영생은 시간을 정복한 사람들의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종교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워하는 마음과 통해 있습니다. 두려움은 죽음이 그 근본 원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영생을 확보하면 죽음이 두려워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죽어도 사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요11:2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본능적 정서를 주셔서 죽음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본성을 가지게 하시고 아울러 종교성이 많게 하셨습니다. 종교성은 경배

의 대상을 찾아 경배하며 영원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도 숨 쉬고 맑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종교성을 올바르게 발휘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심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아침에 창조하신 만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아 믿고 경배하는 지혜를 나타내도록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창조주의 베푸신 은혜 안에서 하루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